

技術蓄積과 雇傭

Technology Accumulation and Employment



柳 騎 榮

企協中央會
中小企業新聞編輯局長

■ 技術이 아니면 죽는다

우리는 日本의 例를 잘 본다. 우리뿐만 아니다. 美國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도 최근에 와서는 日本의 例를 잘 들고 있다. 그만큼 日本이 표본적으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日本 産業界에서는 「技術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時語가 나돌고 있다. 앞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의 열쇠를 技術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日本의 産業技術은 세계수준이다. 小型自動車가 美國市場의 90%를 차지하는가 하면 오토바이, 時計, 카메라, 造船, 電子製品 등 7~8개 품목이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日本이 가지는 기술의 위력이다.

1950년대에 美國의 기술을 모방한 日本이 오늘에 와서 세계 수준의 기술 성장과 經濟大國으로 부강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美國을 비롯한 英國, 西獨, 프랑스, 伊太利 등 선진국들이 줄을 이어 日本을 방문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日本 스스로도 자기네들의 技術이 세계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自認하면서도 技術開發에 '더한층 熱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70년대는 技術의 時代이고 80년대는 技術의 競爭時代이며 90년대는 技術의 戰爭時代라고 표현하고 있다. 技術의 競爭과 戰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技術로는 勝算이 없으므로 더한층 高度技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0년도의 日本民間部門 技術開發 投資는 5兆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원貨로 따지면 15兆원이다. 그런데 83년도의 政府예산 동향을 보면 政府豫算의 科學技術投資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부문 專用技術部門 豫算을 별도로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하나 놀라운 사실은 日本의 이같은 民間部門이나 政府베이스의 막대한 技術投資가 대부분 30년 내지 50년의 앞을 내다본 투자(研究)라 한다.

■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技術의 高度化와 新技術의 개발이란 결코 하루아

침이나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研究와 오랜 經驗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바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技術의 蓄積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技術의 蓄積없이는 技術의 高度化 내지 技術의 새로운 開發이란 不可能한 것이다.

技術의 蓄積이란 技術部門에 從事하는 科學者, 技術者 즉 技術系 人力에 의하여 축적된다.

먼저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民間部門(企業)에 있어서의 技術投資 비율을 알아보자. 79년도의 日本의 기술투자는 GNP의 1.95% (80년도는 2.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 輸出製品에 대한 기술투자는 日本이 매출액의 3.9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 (貿協조사). GNP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2배가 넘고 賣出額 투자에서는 2배반이 넘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上位圈에 속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그들의 會員企業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企業技術投資는 賣出額의 0.65%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日本의 1956년도와 同一한 수준이니 일본에 비해 26년이 뒤지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中小製造業의 技術投資를 보면 1978년의 好景氣期에 投資總額이 81억 5천만원에 不過하며 이는 약 3만으로 잡은 總 中小製造業體中 10.2%에 해당하는 會社만이 技術投資를 하고 있으며 業體當으로는 平均 2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業種別로는 金屬組立과 機械 및 裝備에 22억 4천만원이 최고이다. 그것도 既存製品에 대한 加工, 개량에 53.4%가 투자되어 신제품 개발 등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技能工의 철새 移動

雇傭制度和 技術蓄積과는 어떠한 函數관계가 있는가? 이에 關한 조사나 分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數值的인 資料가 없으나 一般적으로는 技術系 雇傭移動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술의 定着이나 축적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美國의 實業人들이 日本을 시찰한 報告書에 의하면 日本의 終身雇傭制가 日本의 企業發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長期勤積이 産業技術 축적에 크게 寄與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韓國生産性本部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民間企業의 從業員들은 5년근속 미만자가 전체의 55%에 이르고 10年以上의 근속자는 전체의 9.6%에 지나지 않고 있다. 日本의 81.7%에 비하면 우리나라 종업원들은 職場(工場)을 옮겨 다니기를 밥먹듯 한다.

76년부터 기능공 不足現象이 일어나자 中小企業은 물론이고 이렇다할 屈指의 大企業들이 他社의 技術人力을 스카웃하는데 專門要員을 배치하여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有能한 技術者 技能工을 뽑았다.

중소기업은 견습기능공을 길러서 쓸만큼 키워놓으면 더 큰 業體에서 스카웃해가고 그것을 또 大企業이 스카웃해 가는 바람에 한때 中小企業界는 技能工 不足으로 골탕을 먹었고 工場街에는 技能工들이 배를 지어 철새처럼 공장지대를 移動하는 珍風景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 技能工들은 不幸하게도 하나의 技術을 몸에 익힐 時間이 없었다. 우리나라 공장에는 이래서 半風水기능공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 企般의인 技術蓄積度는 알 길이 없으나 電子工業의 기술축적도를 보면 이래서는 알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美國의 技術蓄積度를 100으로 보았을 때 日本이 44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고작 1.7이다. 日本대비 26분의 1이다.

또 電子工業에 있어서의 生産額을 보면 日本이 1인당 46,000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000달러로 日本이 2.6배가 높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生産性은 日本대비 30%에 못미친다.

이만큼 우리의 國際競爭力이 약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술저위가 우리나라 家電製品에서 黑白TV를 제외하고는 國產化率이 모두가 50% 미달 상태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고용실태 부터 알아보자. 79년도의 총고용은 中小企業이 484,363개 業體에 2,177,000명이고 大企業이 3,246개 業體에 1,874,000명으로 모두 4백 5만 1천명이다.

業體當 平均은 中小企業이 5명이 안되고 大企業은 575명이 넘는다. 製造業部門에서는 80년도에 中小企業이 1,031,000명이고 大企業이 1,058,000명으로 모두 2백 3만 1천명이다.

그런데 中小製造業體數는 약 3만으로 보아 業體

当平均 약 34명 꼴이다.

다음으로는 賃金上昇率과 生産性を 비교해 본다. 1963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78년의 경우 中小企業은 賃금이 26배로 오르고 勞動生産性은 19배로 증가했다.

大企業은 賃금이 22배로 오르고 生産성은 28배로 증가했다. 中小企業은 賃금이 生産성을 앞지르

고 있으나 大企業은 이와 반대로 生産성이 賃金を 증가하고 있다.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賃金-勞動生産性 指數는 別表와 같다.

▣ 왜 從業員 移動이 甚한가

雇傭部門에서의 關心事項은 무엇보다도 從業員들

◇ 賃金과 勞動生産性 指數

區 分	中 小 企 業				大 企 業			
	賃金(年)	指 數	勞動生産性(年)	指 數	賃金(年)	指 數	勞動生産性(年)	指 數
1963	35	100	349	100	54	100	488	100
1971	152	433	1,138	326	323	419	2,496	555
1978	919	2,641	6,740	1,195	1,195	2,218	12,472	2,784

[企劃院]

의 離職現象이다. 離職문제는 企業의 成長과 특히 技術蓄積과는 密接한 函數關係에 있는만큼 앞으로 많은 研究가 要請되고 있다.

離職率은 大企業보다 中小企業이 높다. 또 앞으로의 우리 産業經濟는 중소기업이 그 主役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中小企業의 從業員 動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中小企業法은 從業員數에 있어서 常時 使用人員 5人 以上 300人까지를 中小企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人 以下는 零細企業으로서 中小企業 定義로 볼 때 中小企業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中小企業의 從業員 구조는 20人 以下の 업체가 약 80%를 點하고 있다.

79년도는 갑작스러운 金融 긴축정책으로 심한 不況이 엄습했었다. 이 해에 中小企業들은 업체당 평균 7.8%의 減員이 强요당했다. 즉 業体당 6名이 減원된 셈이다. 이로 인해 이 해에 10만명이 職장을 떠났다.

79년 이래의 不況은 아직도 연장되고 있는 셈인데 81년 4.4分期中의 중소기업의 離職率 統計를 보면 11%로 나타나 있다.

50人 從業員 업체의 경우 약 5.5人이 職장을 떠난 꼴이다. 그런데 同分期中 새로 就業한 人員은 10%이니 1.0%가 줄어든 계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줄어든 1%가 아니고 職장을 떠나간 11%가

문제이며 50人 종업원의 경우 年間 22人 40%의 人員이 교체되는 셈이다.

이들 종업원들은 왜 이 職場을 떠나고 있는가. 그 事由는 무엇인가?

81년 4.4分期 動向을 企協中央會의 조사본에 의한 離職은 다음과 같다.

- 停年退職으로 2.1%
- 業체가 事業을 축소하여 14.9%
- 疾病 또는 負傷으로 1.7%
- 賃金水準이 낮아서 16.5%
- 일하는 條件이 나빠서 5.1%
- 他社의 스카웃으로 26.7%
- 사람관계가 좋지 않아서 2.5%
- 福祉施設이 나빠서 2.5%
- 기타事由 25.3%

以上の 事由에서 볼 때 他社의 스카웃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이 賃金이 他社보다 낮아서가 16.5%이다. 이 두가지 事由가 전체의 43.2%, 거의 切半에 가깝다. 이 중 가장 問題視되는 他社의 스카웃과 賃金水準의 內需와 輸出로 區分해 보면

- 他社스카웃=內需 23.6% 輸出 31.6%
 - 賃金水準低位=內需 15.8% 輸出 17.4%
- 두部門 모두가 輸出業体측이 높다.

勞·使 함께 反省할 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不況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國際 景氣의 混迷나 美달러貨의 高金利 加勢 등 국제요인에 보다 우리經濟 자체가 가진 要因이 크다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擴大 開發政策으로 經濟규모가 커졌다. 輸出은 주로 低賃金을 바탕으로 한 低價品이 主宗이었고 그것이 또 競爭力의 중심이었다. 79년의 金融긴축은 擴大開發投資의 副作用이 그 限界에 이르러 이를 수습하기 위해 不可避하였고 이미 우리商品의 경쟁력分野를 台灣·香港·싱가포르·필리핀 그리고 中共 등이 침식해옴으로써 輸出市場을 이들 後發國에 의해 잠식 당한 것이다.



우리는 輸出뿐만 아니라 內需에 있어서도 싸구려 製品이 市場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品質이 보장되는 제품을 수요자들은 원하게 되었다.

만들면 팔린다는 60년대의 市場패턴이 品質市場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國際市場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 國內外市場에 대한 壁이 생긴 것이다.

이 市場의 壁을 뚫는 것이 다름아닌 産業技術인 것이다. 日本은 이미 60년대 高度成長長期에 80年代를 겨냥한 技術開發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공장에서 有能하다고 보이는 技術工은 우대하고 研修와 研究를 시키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技術人材를 길러낸다는 고용관에는 伊太利도 일본과 비슷하다. 日本과 伊太利는 高齡技術者(오랜

경험을 가진 高齡技能工을 발탁)를 工場마다 配置하여 기술지도를 시킨다.

오늘 우리나라의 제품수출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주요요인의 하나가 이같은 技術不足에 의한 製品의 落後性이 가지는 競爭力상실 때문이다. 技術의 축적은 技術人力의 定着이 필요하며 技術開發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79년의 日本의 高級技術人力은 1만명에 24명이 확보되어 있다. 西獨은 15명이다. 日本보다 낮으나 그대신 技術投資가 日本에 앞선다. 우리나라는 8명뿐이다. 일본의 3분의 1이다.

따라서 日本의 技術開發 能力은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51.6%이며 미국의 高級科學技術은 防衛産業에 中心을 두고 있는 반면에 日本은 民間産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日本이 51.6%를 훨씬 넘는 水準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日本의 技術開發 能力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우리나라의 그것은 2.5% 수준이다. 또 日本의 技術輸出은 19.8%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그것은 거의 제로상태이다.

이같은 日本과의 比較에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現實을 알 수가 있다. 이같이 볼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不況의 正체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도 짐작이 갈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技術이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技術축적에 專念해야 할 것이며 美國도 日本의 終身雇傭制 導入을 檢討하고 있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